

사노라면



정복언

시인·수필가

하루하루를 살포시 껴안는다. 내게 끝없이 다가올 시간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목적을 이루려고 땀 흘리는 것도 아니요, 지나는 자국을 남겼으면 하는 욕망이 솟구치는 것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누리길 바랄 뿐이다.

아내가 내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운전하는 걸 늘 걱정한다. 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신 택시를 이용하라고 할 정도다. 또 하나는 메니에르병이 찾아들까 염려한다. 이전에 두 차례 고통 속 119 신세를 지는 걸 보며 내심 충격 받았나 싶다. 너무 어지러워 산송장이 됐던 경험을 잘 아니 걱정하지 말

라고 해도, 머리가 어지러운 느낌이 들면 미리 약을 먹으라고 재촉한다. 지난달 초에는 철분제를 6개월간 복용하고 빈혈 수치가 어떻게 변했나 결과를 보러 갔었다. 담당의는 15.1g/dL로 정상이라고 한다. 순간 기쁜 마음이 날개를 달고 날았다. 다른 병원에서는 여러 해 몇 개월마다 검사하고는 빈혈 수치가 10~11이라고 하며 따로 처방은 해주지 않고 위장관 출혈이 염려된다는 말을 덧붙였었다. 이번 병원에서는 비슷한 수치인데도 처방을 해줘 좋은 결과에 이른 것이다. 의사마다 치료법이 다를 수 있음을 실감했다.

그 이튿날 머리가 좀 멍하다는 말에 아내는 득달같이 메니에르병 약을 먹으라고 한다. 일 년쯤 됐을까, 무심히 한 봉지 약을 먹은 시내버스를 타고 신제주의 단골 사진관으로 향했다. 어디서 의식이 흐려지고 잠이 들었던 걸까. 눈을 떴을 때 목적이 정류소를 한참 지나 엉뚱한 곳으

또 하루를 건너며

로 가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토요일이어서 오후 1시부터 문을 연다고 한다. 회색 기분이 돼 집으로 향하며 널뛰기 일진도 품어야 할 일상이라고 억지로 위로했다.

며칠 전 아내가 사기 단지 두 개를 깨뜨려 버린다고 했다. 순간 화분으로 사용하면 그만이었다 싶어 내가 사용하며 건네받았다. 어떻게 물구멍을 뚫느냐가 문제였다. 인터넷으로 알아낸 정보를 따르기로 했다. 마트에서 청테이프를 사다가 안쪽 바닥에 붙이고 바깥 바닥과 주변까지 붙였다. 단지를 얹어놓고 망치로 시멘트못을 바닥 중심부에 대고 가볍게 두드렸다. 몇 번 두드리니 축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부터는 둥그렇게 뚫는 게 쉬웠다. 화분으로 멋지게 탈바꿈할 때 신이났다.

그저께는 참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오일장에 들었다.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북적였다. 아내는 생선과 몇 종류 채소 모종, 그리고 군것질거리도 두어 개 샀다. 나는 꽃가게에 들러 별수국 화분을 샀다. 한 가지엔 꽃이 피어 있고 한 가지엔 꽃망울이 맺힌 것이었다. 마당의 수국 화분들과 놓으면 균계일화로 우쭐떨 테지. 지난해 삼목했던 여러 수국 중 몽우리를 맺은 것들이 있지만 꽃이 피려면 아직 먼 것 같다. 어떤 색깔과 모습으로 피어날는지 설레게 한다. 궁금해 기다리게 하는 건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하던가.

높은 세월이 나를 위로한다. 노인의 일상이 뭘 별빛 같을 수야 있느냐고. 그저 크게 아프지 않고, 근심 걱정 없이 얄매이지 않고 가볍게 살아가면 된 게 아니냐고.

눈 뜨면 존재 자체로 감사하며 하루를 연다.

*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 플로깅 일정, 앱에서 쉽게 찾으세요



나의 의견

장희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정책팀장

제주에서는 플로깅이 일상이 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지구별 플로깅 여행, 훈디(숨비)쓰담, 다함께 봉그깅, 바다쓰줍, 봉그젠 등 제주의 자연을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이 주도적으로 매달 일정을 계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의 플로깅은 오름, 올레길, 마을안길, 해안가 어디에서든 즐길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플로깅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처럼 최근 플로깅 활동에 공감 가진 사람들이 각종 행사나 활동 등에 플로깅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면서 이를 즐기는 방법

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지질공원 대표명소를 중심으로 운영한 협력형 플로깅, 제주 위케이션에 플로깅을 결합한 ESG 인센티브 제도, 우도소리축제의 우도봉 플로깅 등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다양한 플로깅 활동들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플로깅 앱을 구축해 6월 초 출시할 예정이다.

1365에 가입된 봉사자라면 앱에서 플로깅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플로깅에 참여하고 싶은 봉사자들도 앱에서 플로깅 일정을 쉽게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봉사자들은 활동 중 사고시 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고 별도 신청없이 자원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으로 앱으로 쉽게 참여하는 제주 플로깅을 통해 '기후감수성'도 충전하고, 제주의 자연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구촌 소식

가자지구, 구호품 끊기며 식량난 극심해져

2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 가자지구 내 구호단체들은 구호 물품과 의료용품 재고가 바닥나고 필수 식재료 가격은 치솟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은 지난달 가자지구에서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3700명으로 적전 달보다 80%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어느 재판관의 이야기



나의 의견

좌연재

제주시 의료보장팀장

요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이후 조명되는 이가 있다. 바로, 판결문을 침착하게 읽으셨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이다.

문형배 판사는 이른 김장하 선생의 장학생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경남 하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었던 고2 때부터 대학 입학 후 4학년 때까지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으로 공부했다. 문 판사는 “김장하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판사가 못 됐을 것”이라며 “선생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유일한 잣대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에 대해 알수록 흥미로워 2019

년 국회 인사청문회 영상을 접하게 됐다. 문 판사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것이 언급되자 결혼할 당시 평균인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또한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형 로펌들이 고액을 제시할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변했다.

최근 TV만 틀면 서로가 자신만 잘났다고 혈통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속 깊이 뜨거워졌다. 그의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부끄럽다고도 했다. 그의 삶이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이며, 청렴의 실천일 것이다.

입직한 지 20년 채 안 되는 내가 감히 그를 따라 할 수 없겠지만 “평균인의 삶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문장은 공직자 모두가 공직 내내 새겨야 할 미문이 아닌가 싶다.

골목서 시작하는 민생경제의 온기



나의 의견

고영채

서귀포시 표현면사무소

장을 보러 시장을 간 어느 날, 채소값이 올라 주저앉듯 한숨을 쉬는 선배시민의 모습과 마주쳤다. “이젠 뭐 하나 살 때마다 계산기부터 두드려야지.” 무심한 듯 툭 던진 그의 말에 지금의 민생경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다시금 실감했다. 뉴스에 나오는 경제 지표보다 손에 닿는 물가, 지갑 속 줄어드는 현금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진짜 ‘경제’다.

민생경제는 거대한 수치나 거창한 이론이 아니다. 동네 슈퍼의 하루 매출, 자영업자의 월세 걱정, 아이들 학원비를 아끼는 부모의 고민 같은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 있다. 특히 지역사와 골목상권과 전통 시장은 그 자체로 지역경제의 숨결

이자 주민 삶의 현장이다. 그런데 요즘 그 골목이 점점 조용해지면서 상인들의 표정도 어두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먼저, 민생경제는 정책 이전에 공감과 실천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전통 시장 이용을 생활화하며, 동네 가게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작은 움직임이 필요하다. ‘하나 사더라도 동네에서라는 작은 선택이 골목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또한 공직자의 역할도 다시금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책상 위 통계만을 바라보는 행정이 아닌, 현장을 직접 찾고 목소리를 듣는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하다.

민생은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체감하고 들어야 한다. 서류로만 존재하는 정책이 아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The Jeju Daily News	제주일보	www.jejunews.com
○ 회장·발행인·인쇄인 오영수	○ 편집인 송용관	○ 편집국장 김재범
☎ 63261 제주시 태성로 3길 4 대표전화 : 064-740-6114 E-mail : jnews1945@jejusinbo.com		
독자 문의·광고 전화 740-6338 팩스 740-6500	판매관리부(구독신청·배달 안내) 전화 740-6141	
광고 문의·접수 전화 740-6121 팩스 740-6161	아라 752-9909 중제주 745-3657 신제주 742-3657	
부속실 전화 740-6312	노형 746-2426 서제주 758-8303 의도·하귀 713-7999	
논설위원실 전화 740-6201-2	애월·한림 799-0850 한경 010-8109-0707	
총무국 전화 740-6412 팩스 742-2004	구좌 784-5606 화북·조천 784-4724	
서울지사 전화 02-784-3461 팩스 02-784-3463	서귀포 733-1282 신서귀 738-8582	
서귀포지사 전화 733-1201-2 팩스 733-2080	남 원 764-7080 성산·표선 782-3413	
편집국 전화 740-6117 팩스 740-6500	대정·안덕·중문 792-5122	
정치부 740-6323 사회부 740-6343 교육체육부 740-6381	제주가 00016(2013년 9월 24일) 등록	
경제부 740-6331 문화부 740-6339	(주)제주일보 구독료 월 1만원·1부 500원	
편집부 740-6232 사진부 740-6351	본지는 신문 유통정책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직 한곳만 보며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의 정상을 위하여....

1 비상전원장비

- * UPS(무정전전원장치)
- * AVR(자동전압조정기)
- * 산업용정류기

3 데이터통신장비

- * Network System
- * Server / Workstation
- * Program 개발

2 음성통신장비

- * K/P(키폰) * PBX(교환대)
- * H/A(홈오메이션), 전화기

취/급/품/목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
☎(064)722-0992, FAX.(064)725-0993

■한민전자(사)가맹점 ■이안정보통신 ■편안가정정보통신 ■편안가정정보통신